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FLC는 수출 성공사례 한국변호사도 나가자”



(주)리걸타임즈

특집 2014 올해의 변호사
로펌 업계 내년도 경기 전망
변협 회장 후보 4명의 공약 비교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 리걸타임즈가 '2014년 올해의 변호사'를 선정했다. '로펌 선호도' 설문조사에 나타난 사내변호사들의 의견과 로펌의 업무실적, 리걸타임즈 자체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M&A와 공정거래 등 13개 업무분야와 로펌 경영, 외국 로펌으로 나뉘 1명 또는 2명을 선정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클라이언트의 고민을 뛰어넘는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20명 스타변호사들의 올 한해 활약상과 내년도 전망을 조명한다. 편집자

2014 올해의 변호사



지적재산권 장덕순 변호사

“계약 분야 특허분쟁 더욱 늘어날 듯”

“내년 3월 계약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과 관련, 제네릭 업체들의 권리범위 확인, 무효심판 청구가 더욱 늘어날 것 같아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 등 제약산업의 규제 법규에 대한 자문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사시 24회
▲하버드 로스쿨(LLM)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의 몇 손가락에 드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중 한

사람인 김앤장의 장덕순 변호사는 내년도 분쟁 발생 등 지재 분야의 자문 수요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가 3년 반 이상 자문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분쟁이 합의로 종결되는 등 스마트폰 분쟁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나 생산장비에 관련된 특허분쟁,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분쟁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의견.

장 변호사는 또 특허권 행사와 관련, 공정거래법 문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투어지고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치올 조항 적용 첫 승소판결 받아

올해 그가 수행한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은 지난 11월 선고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캐치올 조항을 적용한 첫 승소판결. 아이스크림 점의 매장을 구성하는 독특한 디자인과 분위기를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외양, 외관을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 보아 상대방 회사의 침해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

해외 양영태 변호사

“내년엔 북서쪽으로 진출할 터”

“내년엔 중국, 러시아, 중동, 유럽 등 북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해요.”

국내 로펌 중 최다, 동남아 등에 모두 7곳의 해외사무소를 가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양영태 변호사는 여전히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있다. 지평이 진출할 곳이 아직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



▲서울대 법대
▲사시 34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내년 상반기 모스크바 사무소 오픈

올해 러시아에만 두 번 출장을 다녀 온 그는 내년 상반기 지평의 여덟 번째 해외사무소인 모스크바 사무소를 열기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국 쪽은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상해사무소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 중국 자본의 한국투자를 많이 이끌어내겠다는 게 그가 구상하는 중국 비즈니스의 방향.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토대로 북한 투자 관련 일도 개척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미얀마 등 동남아에서의 성공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미국과 수교하기 이전부터 미얀마에 들어가 자문을 시작한 지평은 일본 기업들도 현지에서 나와 있는 일본 로펌을 제치고 지평에 자문을 의뢰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아세안 지역은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봐요. 그노하우를 살려 이제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양 대표가 지휘하는 지평의 내년 해외 전략은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 ■